

아르헨티나 기사회생 ... 메시 "월드컵, 이제 시작"

조별 최종전 나이지리아에 2-1 승
메시 선제골 터트리며 부활 신호탄
프랑스와 16강 격돌...대혈투 예고

아르헨티나 축구대표팀의 간판선수 리오넬 메시(31)가 대반격을 선언했다.

메시는 27일(한국시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2018 국제축구연맹(FIFA)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 D조 3차전 나이지리아와 경기에서 전반 14분에 선제골을 터뜨렸다.

이날 반드시 이겨야 16강에 오를 수 있었던 아르헨티나는 메시의 득점과 후반 41분에 나온 마르코스 로호의 결승 득점에 힘입어 2-1로 나이지리아를 따돌리고 극적으로 16강 진출에 성공했다.

메시는 이번 대회 들어 1, 2차전 부진한 경기력 때문에 많은 비난을 들어야 했다.

그는 아이슬란드와 1차전에 슈팅 11개를 시도했지만 하나도 넣지 못했고, 크로아티아와 2차전에서는 슈팅 한 개가 전부였다.

아이슬란드와 1-1로 비긴 아르헨티나는 크로아티아에 0-3으로 완패하며 1무 1패로 탈락 위기에 내몰렸다.

메시 개인적으로도 대표팀 은퇴설에 시달렸고 '라이벌' 크리스티아누 호날두(포르투갈)와 비교되면서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

호날두는 2차전까지 4골을 몰아치며 메시와 대비를 이뤘기 때문이다.

24일이 생일이었던 메시는 나이지리아와 3차전에서 일단 달랠리 모습을 선보이며 아르헨티나를 낭떠러지에서 구해냈다.

전반 14분에 에베르 바네가가 하프라인에서 찰리 공을 페널티 지역 안에서 오른발 강슁으로 선제골을 뽑아낸 것이다. 이후 전반 34분에는 프리킥으로 상대 골대를 강타하는 등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 이날 경기의 '맨 오브 더 매치'가 됐다.

2016년 코파 아메리카 준우승 이후 한 차례 대표팀 은퇴를 선언했다가 복귀한 메시는 비겼더라면 자신의 '월드컵 고별전'이 될 뻔했지만, 후반 41분에 나온 로호의 역전 골로 16강 이후도 기약하게 됐다.

메시는 경기를 마친 뒤 "우리는 조별리그에서 탈락할 팀이 아니다"라며 "이걸 것으로 생각하고 경기장에 나왔지만 이렇게 힘들게 승리할 것이라는 예상은 하지 못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3차전을 앞두고 "월드컵 우승 없이는 은퇴하고 싶지 않다"고 굳은 결의를 내비쳤던 그는 "우리의 월드컵은 오늘 시작됐다"며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경기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또 다른 새로운 월드컵"이라고 16강 이후 대반격을 예고했다.

프랑스와 16강전을 치르게 된 메시는 남은 경기 결과에 따라 호날두와 비교 평가도 뒤집을 기회를 일단 얻은 셈이다.

호날두의 포르투갈 역시 16강에서 강호 우루과이를 만나게 돼 두 선수 가운데 누가 이번 월드컵에서 더 오래 웃게 될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

/연합뉴스



"헐~" 26일(현지시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경기장에서 열린 월드컵 D조 나이지리아와 아르헨티나의 경기에서 아르헨티나의 마르코스 로호가 승부를 결정짓는 두번째 골을 성공시키자 나이지리아 골키퍼 프란시스코 우조호가 망연자실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마라도나가 26일(현지시간) 월드컵 D조 경기에서 아르헨티나가 2-1로 승리를 결정짓자 나이지리아 관중들에게 손가락 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라도나 '손가락 욕' 구설 ...응급치료 건강 이상은 없어

전설적인 축구 선수이자 악동으로 통했던 디에고 마라도나(58·아르헨티나)가 또 구설에 올랐다. 이번에는 '손가락 욕'이다.

아르헨티나는 27일 열린 2018 국제축구연맹(FIFA)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 D조 3차전에서 나이지리아를 2-1로 꺾고 극적으로 16강에 진출했다.

후반 41분에 터진 마르코스 로호의 결승 골이 나락으로 떨어질 뻔한 아르헨티나를 구했다. 아르헨티나 팬들은 크게 기뻐했다. 그러나 마라도

나의 감정 표현은 지나쳤다. VIP석에서 경기를 지켜보던 마라도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소리쳤다. 그리고 양손 중지를 들었다. 마라도나는 저혈압 증세로 경기장에서 응급 치료를 받고, 병원으로 이동해 검진도 했다.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제력을 잃은 마라도나의 모습에 비판이 쏟아졌다. 마라도나와 동시대에 활약한 잉글랜드 축구영웅 게리 리네커는 BBC 문자 중계에 "마라도나가

웃음거리로 전락하고 있다. 정말 아쉽다"며 "정말 우리가 아는 마라도나가 맞는가"라고 썼다.

잉글랜드 대표팀 출신 리오 퍼디난드도 "이렇게 자신의 명성을 깎아내리는 마라도나의 모습을 보는 게 정말 슬프다"라고 비판했다.

마라도나는 대회 초반부터 구설에 올랐다. 그는 16일 아르헨티나와 아이슬란드의 1차전 경기를 관전하다 자신을 향해 환호하는 한국 관중을 향해 눈을 찡는 제스처를 했다. 여기에 대

놓고 환영을 했다. /연합뉴스

16강, 2% 부족한 일본

자력 진출 승점 -1...오늘밤 폴란드전

일본이 자력으로 러시아 월드컵 16강 진출을 확정하려면 승점 1이 필요하다. 이미 탈락이 확정된 폴란드는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 한다.

일본과 폴란드는 28일 오후 11시(한국시간) 러시아 볼고그라드 아레나에서 H조 3차전을 치른다.

일본은 1승 1무로 16강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밟았지만, 폴란드는 2패로 탈락이 확정됐다. 일본은 무승부만 거둬도 16강행 티켓을 손에 넣는다.

폴란드는 '2패 뒤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하는' 이상한 월드컵 조별리그 정크스를 가지고 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D조에서 한국에 0-2로 패한 폴란드는 2차전에서는 포르투갈에 0-4로 무너졌다. 그러나 미국과의 3차전에서 3-1로 승리하며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켰다.

2006년 독일 월드컵에서도 에콰도르에 0-2, 독일에 0-1로 패한 뒤, 코스타리카를 2-1로 꺾고 1승 2패로 조별리그를 마쳤다.

니시오 아키라 일본 감독은 평소 "1-0보다 4-3 승리를 좋아한다"고 말했고, 실제 일본 대표팀은 이번 월드컵에서 공격적인 축구로 박수받았다.

애초 일본의 16강 진출을 예상하지 않았던 국외 언론도 3차전에서는 일본의 승리 혹은 무승부를 전망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현지시간) 러시아 로스토프나도주의 로스토프 아레나에서 열린 2018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 D조 3차전 아이슬란드와 크로아티아의 경기를 찾은 아이슬란드 축구팬들이 박수를 치며 응원을 펼치고 있다. 이날 아이슬란드 팬들은 두 팔을 머리 위에 크게 벌린 뒤 박수를 치며 '후~'라고 기합소리를 내는 특유의 '바이킹 박수'로 아이슬란드 선수들에게 힘을 보탤다. /연합뉴스

경기장 울린 '천둥박수' ...아이슬란드 응원 승

크로아티아에 1-2 패 16강 좌절

경기장에 울려 퍼진 바이킹 박수의 웅장함처럼 아이슬란드가 사상 첫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 잠입하게 최후를 맞았다.

아이슬란드는 27일 열린 2018 러시아 월드컵 D조 조별리그 3차전에서 크로아티아에 1-2로 패했

다. 아이슬란드는 끝까지 투혼을 발휘했지만 남은 16강 티켓은 아르헨티나에 돌아갔다.

아이슬란드는 전반 중반부터 세트피스 상황에서 장신 선수들을 활용해 크로아티아의 골문을 위협했다. 전반 막판까지 경기를 지배하고도 골문을 열지 못한 아이슬란드는 후반 8분 밀란 바넬의 하프 발리 슈팅에 먼저 실점했다.

후반 31분 길비 시귀르드손의 페널티킥 득점으로 겨우 동점 골을 얻어낸 아이슬란드는 수비수를 빼고 공격수를 추가 투입하며 역전 의지를 불태웠으나 후반 45분 이반 페리시치에게 추가 골을 내주고 무릎을 꿇었다.

객관적인 열세에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아이슬란드 선수들처럼 팬들도 그 기세만큼은 '일당

백'이었다. 두 팔을 머리 위에 크게 벌린 뒤 박수를 치며 '후~'라고 기합소리를 내는 특유의 '바이킹 박수'는 지켜가는 선수들을 수시로 일깨웠다.

사상 첫 본선에 오른 아이슬란드는 1무2패로 대회를 마감했지만 세계랭킹 5위 아르헨티나와의 경기 1-1 무승부를 기록하며 파란을 일으켰다.

치과 의사, 영화 감독, 등 감독·선수 대부분 다른 직업을 병행하며 화제를 낳은 아이슬란드의 동화는 이제 막을 내렸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그들의 투혼은 긴 여운을 남겼다. /연합뉴스